

# 남자 청소년의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정서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및 공격성과의 관계

## The Relation between Male Adolescent Friendship Jealousy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Aggression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배재현  
교수 최보가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Univ.

Doctoral Course : Bae, Jae-Hyun

Prof: Choi, Bo-Ga

### ◀ 목 차 ▶

I. 서론	IV. 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male adolescent friendship jealousy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aggression. The subjects were 204 middle school second grader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riendship jealousy and all emotion types. 2) The type of friendship jealous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3) The type of friendship jealous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relational aggression. 4) The relational aggression was affected by blaming-others strategies.

**주제어(Key Words):** 우정관계 질투심(Friendship Jealousy), 공격성(aggression),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신학기에 새로운 반을 배정받게 되

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친한 친구가 자신의 반에 있는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반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지만, 멀지 않아 새로운 반에 적응하  
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

Corresponding Author: Bae, Jae-Hyu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1370  
SanKyuk Dong, Puk-ku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6210 E-mail: cinespace@dreamwiz.com

적인 우정관계를 맺게 된다.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들어할 사람은 아마도 친구의 새로운 우정관계로 인해 남겨진 예전의 친구일 것이다.

이렇듯 2인의 우정관계에 새로운 제3자가 개입하여 삼자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기존의 2인 우정관계는 제3자로 인해 위협받거나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질투정서가 생기게 된다(Volling, McElwain & Miller, 2002). 이러한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정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2인의 우정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 제3자를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관계망으로써 우정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Lansford & Parker, 1999). 그리고 질투정서는 다양한 정서로서 정의되기 때문에, 우정관계 질투정서는 어떤 정서와 더욱 더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정관계 질투심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질투와 관련된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인관계 질투에 대한 연구(김교현, 2004),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형제관계 질투에 대한 연구(최윤미, 200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타인 비교상황에서의 질투에 대한 연구(서승정, 1995), 신학적인 입장에서 질투에 대한 연구(정이경, 2002)가 이뤄졌다. 이들 연구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질투가 유발되는 상황을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내렸기 때문에 사용한 측정도구 또한 다르다. 그리고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정서를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투를 다룬 대부분의 국외연구들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성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2000년대부터 다양한 관계맥락으로 관심을 확대하여, 후기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정관계 질투 연구(Biggs & Parker, 2001; Parker, Walker, Low & Gamm, 2005; Roth, 2002; Walker & Parker, 2001)가 이루어졌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느꼈던 질투의 경험 및 강도에 대한 연구(Lucas, 2004)를 함으로써 가상의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의 질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6세 유아를 대상으로 질투와 사회적 적응을 연계한 연구(Walker, 2003)가 이루어져 어린 유아에게서도 형제가 아닌 또래들간에 질투정서가 유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과 관계상황에서 질투정서가 유발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질투정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질투와 같이 우정관계에서 유발되는 정서를 잘 조절하게 되면 우정관계는 더욱 더 좋아지고, 우정관계가 더욱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도 더 잘 조절하게

된다고 보았고(Calkins, 1994), 질투심이 유발되었을 때 제3자가 기존의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해결의 매개체로써 도움을 줄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기존의 우정관계는 보다 현실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Simmons, 2002).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제3자와 더욱 더 강한 새로운 우정관계가 형성되어 기존의 친구를 무시하거나 외롭게 만들 수도 있고(Roth, 2002), 관계갈등과 폭력(Hansen, 1991; Stets & Pirog-Good, 1987)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질투심이 유발되었을 때의 정서 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즉 약한 질투정서를 느낀 사람은 약한 행동반응을 일으키지만 강한 질투정서를 느낀 사람은 강한 행동반응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투심이 유발되었을 때 어떠한 부정적인 행동반응을 나타내느냐는 질투정서의 강도와 관련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질투심과 같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을 때, 이러한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조절전략사용은 나이가 어릴수록 행동적-상황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인지적 전략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Harris & Olthof, 1982).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자기조절 전략들이 좀 더 분화되고 각각의 다른 상황들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되므로(남궁선, 1997) 청소년기가 되면 보다 다양한 정서조절전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정서조절전략을 행동전략과 인지전략으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므로(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질투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어떠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직까지 질투정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연계한 연구가 전무하여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스트레스사건과 같이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연구(김소희, 2004)에서 추정해보면,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개인이 사용하는 정서조절전략이 있을 것이고, 정서조절전략중 어떠한 인지과정으로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도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다양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자주 사용하는 특정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있게 되는데, 이 특정 인지정서조절전략이 적응적이어서 질투심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부적응적이어서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질투상황이 유발될때마다 정서 조절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우 높은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은 불행해하고 불안해하며 외현적이고 조심스러우며 고통스러워하고 의심스러워하며 자기비난(Bringle, 1981; Carson & Cupach, 2000; Guerrero &

Andersen, 1998; Sharpsteen & Kirkpatrick, 1997), 타인 비난(Tennen & Affleck, 1990)을 할 수도 있으며,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중 자기비난전략과 파국화전략은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다는 연구(Garnefski, 2002)에서 볼 때, 질투정서의 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질투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정서강도에 따라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를 밝힌다면, 질투정서로 인한 부정적인 반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쉽게 좌절하고 분노를 자주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가 높은 사람은 정서조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또래집단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므로(Rubin & Mills, 1991), 질투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써 다양한 공격행동을 보이게 되므로(Guerrero, Anderson, Jorgensen, Spitzberg & Eloy 1995) 질투정서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연결, 표출되어 또래의 보복적인 반격을 받고, 이러한 반격을 받게 되면 적의적 해석을 강화시켜 다시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질투정서에 대한 행동적인 반응이 협박(예, 언어적·신체적인 폭행, 굴욕), 수동적 공격(빈정댄, 부루스함, 관계종결의 위협, 죄의식유도, 침묵), 사회적 공격(협담을 통한 명예훼손, 상대방을 관계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사회적 상황조작)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는 연구(Guerrero et al., 1995)에서 볼 때, 질투정서의 강도에 따라 공격적인 행동의 형태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즉 반응적 공격과 주도적 공격처럼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직접적인 공격은 우정관계의 규범에 맞지 않는 반면, 간접적인 공격형태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적은 관계적 공격은 질투유발상황에서 선호될 것이다(Parker, Walker & Gamm, 2002). 따라서 질투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정서강도에 따라 어떤 유형의 공격행동을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공격행동에 대한 많은 이론들은 시간과 상황에 걸쳐 공격행동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rick & Dodge, 1994; Huesman & Guerra, 1997). 이처럼 인지는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므로, 질투정서가 유발되면 인지적 측면인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선택하게 되고, 이 전략은 다시 행동적인 반응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질투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사용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중 어떤 전략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은 질투정서로 인한 부정적인 인지과정과 부정적인 행동반응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정관계 질투정서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가 될 뿐만 아니라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정서의 중요성 및 관심을 불러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질투정서가 유발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밝혀 이들의 정서조절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남들보다 자주 질투정서를 유발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표현되어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우정관계 질투정서와 정서유형의 관계는 어떠한가?

1-1. 우정관계 질투정서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1-2. 정서유형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1-3. 우정관계 질투정서와 정서유형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우정관계 질투정서에 따른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우정관계 질투정서에 따른 공격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우정관계 질투정서 : 삼자인 친구관계속에서 분노, 공포, 애정, 자존심, 경쟁의식 등이 결합된 정서적 상태 혹은 반응이라 정의한다.

2)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 정서적으로 각성된 정보를 인지적으로 다루는 것으로서,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그 조작적 정의는 Garnefski 등(2001)의 CERQ(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사용한 김소희(2004)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공격성 : 첫째, 반응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보복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둘째, 관계적 공격성은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위협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주는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행동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주도적 공격성은 공격유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행동으로 정의한다. 그 조작적 정의는 Crick과 Grottpeter(1995), Schwartz, Chang와 Farver(2000)를 번안하여 사용한 박성연(2002)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인 것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우정관계 질투정서

질투는 단순히 한 가지 감정요소로 정의내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질투가 어떠한 기본적인 감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을 까라는 질투의 구조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견해를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질투정서와 관련된 다양한 정서에 초점을 둔 정의인데, Izard(1991)는 분노, 슬픔, 공포가 혼합된 정서로 정의하였고, Volling 등(2002)도 복잡한 사회적 정서로서 분노, 공포, 슬픔, 기쁨과 같이 기본적인 하나의 정서와는 다르다고 하였으며, Hupka(1984)는 삼자관계 속에서 공포, 분노, 그리고 안심하는 마음조차도 질투의 하나로 보았다. 다음으로 질투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 초점을 둔 정의로서, Parrott(1991)는 한 사람이 경쟁하는 또 다른 사람과의 중요한 관계의 상실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될 때의 경험으로써, Mathes, Adams와 Davies(1985)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되지만 일반적으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 배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불안정감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견해의 초점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된 견해는 질투가 개인만으로도, 사회적 상황 하나 만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항상 사회적 삼자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정서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White와 Mullen(1989)은 질투가 유발되는 사회적 삼자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첫 번째 관계인 질투를 보이는 개인(the jealous individual)과 소중한 사람(the beloved)과의 관계인 일차적 관계, 두 번째 관계인 소중한 사람과 경쟁자(the rival)와의 관계인 이차적 관계, 세 번째 관계는 질투를 보이는 개인과 경쟁자와의 관계인 적의적 관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질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상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항상 삼자간 관계속에서 발생하지만, 단순히 세 명의 사람이 함께 관련되어 있다고 질투가 유발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상황은 질투를 보이는 개인과 소중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친밀한 관계이어야 하는데, 이 관계는 반드시 애정관계일 필요는 없지만 애정관계에 놓여있을 때 보다 강한 질투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쟁자에 의해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위협받거나 상실되었을 때 질투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 상황은 질투심이 연인관계가 아닌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애정상실의 관점에서만 질투심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Volling *et al.*, 2002). 이상 연구자들의 질투심에 대한 개념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내린 우정관계 질투심의 개념은 삼자인 친구관계속에서 분노, 공포, 애정, 자존심, 경쟁의식 등이 결합된 정서적 상

태 혹은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우정관계 질투정서의 실태를 살펴보면, Parker와 Low(1999)는 동성친구간에 질투심이 유발되었을 때 행동 경향성이 안정적이라고 하면서, 어떤 청소년들은 침착하게 자기 친구의 새로운 친구를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청소년들은 강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면서 지나친 주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th(2002)는 제3자가 동성친구가 아닌 이성친구일때 보다 강한 질투정서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성친구를 사귀면서 데이트 관계에 몰두하는 친구에게서 자신이 점차 잊혀질 것이라 상상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분노와 강한 질투정서를 나타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5, 6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Biggs와 Parker(2001)의 연구, 5-8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Parker 등(2002)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질투심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질투심의 성차를 밝히고 있다. 황정규(1990)는 중고등학교 2,29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청소년들이 우정관계상황에서 매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정관계 질투정서와 관련된 정서유형을 살펴보면, Roth(2002)는 우정관계 질투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제3자가 동성친구인지 이성친구인지에 따라 관련된 정서유형들이 다르다고 하였다. 즉 제3자가 동성친구일 때는 불안, 놀람, 쓸모없음의 정서유형을 더 많이 느꼈고, 이성친구일 때는 화가 남, 실망스러움, 질투심, 슬픔, 걱정의 정서유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관련된 정서유형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Bringle과 Buunk(1985), Salovey와 Rodin(1990)의 연구는 제3자의 위협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의 특성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에서 변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관계보상의 손실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하면 질투정서와 함께 슬픔, 불안의 감정을 느끼지도 모르고, 자신의 친구에 대한 배신, 무관심해질 것에 대한 추측, 침입자에 대한 민감성을 지각하면 질투정서와 함께 화가 날 것이다. 그리고 당황스러움, 상처, 걱정과 같은 다른 감정들은 질투정서의 애정적인 혼합된 부분으로 나타날 것이고(Parker, Low & Wargo, 1999; Roth & Parker, 2001) 시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되는 질투정서라면 부러움과 같은 정서로도 표현된다(김교현, 2004)고 하였다. 이처럼 질투정서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따라서 다양한 정서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 2.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정서조절은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혹은 정서표현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켜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지를 말한다(Ekman & Friesen, 1975). 그리고 정서를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과정과 전략으로서,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의 원인과 결과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 정서조절전략이다(Calkins, 1994). 정서조절전략은 일단 정서를 경험한 직후, 상황에 대하여 일차적인 평가를 한 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을 함으로써 결정되기 때문에 정서대처전략이라고도 한다(Zeman & Shipman, 1998).

정서조절전략은 반드시 행동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인 전략으로 구분되어 있다(Denham, 1998). Garnefski 등(2001)은 사고와 행동은 다른 시점에 사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은 행동전략과 인지전략을 구별하지 않아 개념적인 문제를 낳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Garnefski 등(2001)은 기존의 대처전략 측정도구들에서 인지적 차원을 가져오거나, 비인지적 차원의 전략을 인지적 차원으로 변형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첨가해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Garnefski 등(2001)은 스트레스 사건 경험 후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정서조절전략을 '이론적으로 더 적응적인' 전략과 '이론적으로 덜 적응적인' 전략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이론적으로 덜 적응적인 전략'을 김소희(2004)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이라 하였고 반추, 파국화, 자기비난, 타인비난의 4가지 하위전략으로 이뤄져 있다. 첫째, 반추 혹은 사고에 초점두기(Rumination or focus on thought)전략은 부정적인 사건과 관계되는 느낌과 사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자신의 감정을 되짚어 생각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과 관련이 있다(Nolen-Hoeksema, Parker & Larson, 1994). 둘째, 파국화(Catastrophizing)전략은 경험의 공포스러운 면을 강조하는 사고이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쁜 경험을 했다는 생각을 자주하거나 자신의 경험이 최악의 것이라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고, 부적응, 정서적 고통, 우울과 관련되어 있다(Sullivan, Bishop & Pivik, 1995). 셋째, 자기비난(Self-blame)전략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고이다. 이는 발생한 사건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생각하는 사고로써, 대부분 귀인양식 연구에서 자기비난은 우울과 다른 병리의 측정값과 관련이 있었다(Anderson, Miller, Riger, Dill & Sedikids, 1994). 마지막으로, 타인비난(Blaming others)전략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는 벌어진 일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남들이 잘못된 점을 생각하는 것으로 정서적 안정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었다(Tennen &

Affleck, 1990).

정서조절전략 사용의 실태를 살펴보면, Rossman(1992)은 아동이 자기 자신의 정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전략 발달을 연구하였는데, 6세, 11세, 15세의 아동은 모두 상황적 수정을 조절전략으로 제안하였으며, 보다 나이든 아동의 경우는 정서적 반응에 대한 인지적 수정을 조절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이옥임(1996)의 연구에서는 분노상황이 또래와 관련되었을 때 아동은 공격적인 방안, 직접적인 문제해결방안, 무대처방안 등의 순으로 분노조절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Hanna, Lowe, Mass와 Halpern(2000)은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아동들이 분노, 슬픔, 화, 걱정,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이를 조절하고자 회피, 수동적 대처, 적극적 대처 등의 전략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이는 아동의 연령,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경희(1996)는 중·고등학생들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서 학업성적문제, 이성친구와의 문제, 심리 성격문제 해결에 있어서 소극적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lett, Blankstein과 Obertinsky(1996)의 연구에서는 정서를 크게 경험하는 개인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정서반응에서 빨리 벗어나기 힘들게 되며, 이로 인해 문제중심적 대처로 나아가기보다 정서중심 대처에 치중한다고 하였다.

질투정서와 관련된 정서조절전략을 살펴보면, Gueerero 등(1995)은 성인을 대상으로 질투심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관계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함으로써 질투심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습관적으로 자주 질투심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사회적 지위와 수용이 저하될 수도 있고,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잊어버리고, 무관심(냉담)한 체하며, 슬프거나 화난 감정을 삼가는 형태로써 과장된 자기의 존을 보이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실제적인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가진다고 하였다.

### 3. 공격성

공격성은 외현적인 행동뿐 아니라 의도나 동기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학자들마다 강조점이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Coie & Dodge, 1998). 외현적 행동에 초점을 둔 정의로 Freshbach(1971)는 공격성을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으로 보았고, Buss(1996)는 '인간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유해한 자극을 나타내는 행동'이라 보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나 동기에 초점을 둔 정의로써 윤완기(1994)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방법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지닌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보았고, 광금주(1992)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을 지닌 신체적, 언어적 행동과 위협적인 자기방어 태도

와 그러한 내용을 담은 사고 및 정서로써 공격성을 보다 넓게 정의하였다.

공격성의 하위유형을 살펴보면, Crick과 Grotzinger(1995)는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는데, 외현적 공격성은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관계적 공격성은 타인의 사회적 관계에 손상을 주기 위해 또래간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특정 아동을 집단에서 소외시키며,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때 외현적 공격성을 Dodge와 Coie(1987)는 다시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는데,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상황에 반응하는 것으로 이 공격성의 보복적인 특성은 공격성의 정서유형인 분노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주도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매우 목표 지향적인 공격성인데 반해,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과 같은 공격의 원인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공격이다. 반응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보복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관계적 공격성은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위협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주는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행동을 의미하며, 주도적 공격성은 공격유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행동을 의미한다. Dodge(1987)는 4년간의 종단연구에서 연구대상자를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으로 분류한 후, 일반적 행동문제, 사회적, 정서적 적응력을 평가한 결과, 반응적 공격성 집단이 신체적 학대경험과 문제의 초기 발병, 또래관계에서의 적응문제를 나타내어 행동문제와 감정조절에서의 어려움, 주의력 부족과 충동성을 더 많이 보인 반면, 주도적 공격성 집단은 더 높은 자기효능감과 자기가치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Day, Bream과 Pal(1992)은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집단은 괴롭힘, 공유, 협상, 실패다루기, 타협, 운동실력에 있어 비공격적인 집단보다 떨어지고, 학교에서 학업 성취율도 낮았으며 내재화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주도적 공격성이 높은 집단들은 학교 적응 문제나 내재화된 문제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투정서와 공격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Buunk(1982)은 질투심이 유발되는 상황은 개인에 따라서 갈등, 공격성, 폭력의 주요원인이 되며 관계종결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다. Bjorkqvist(1994)는 우정관계유지를 위태롭게 하기를 원치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적은 공격적인 전략들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Guerrero 등(1995)도 분명한 공격보다는 사회적 책임이 적은 미묘한 공격성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Salovey와 Rodin(1989)은 질투심에 대한 자기보고보다는 또래보고가

공격성과 더욱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Hansen(1991)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성관계상황에서의 질투심은 데이팅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이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질투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처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부정적 정서와 공격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용린(1994)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느끼는 정서는 미움, 원망, 죽이고 싶음, 증오, 울고 싶음 등의 정서반응이 수반되고, 청소년의 경우 그 강도가 심하고 타인 공격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스트레스가 심각할수록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윤진(1987)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 억압된 증오심과 분노는 개인 내에 축적되어 그 압력이 올라가게 되므로 일반적 공격행동, 격렬한 스포츠, 언어적 공격,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격행동을 통하여 분출시키므로, 개인이 가진 감정상태가 공격행동의 표현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4.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공격성의 관계

Bandura(1973)는 환경적 정보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매개과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변형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공격행동에 대한 많은 이론들은 시간과 상황에 걸쳐 공격행동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rick & Dodge, 1994; Huesman & Guerra, 1997). 이를 우정질투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 적용해 보면, 질투정서가 유발된 후의 공격행동은 적절한 대처전략 및 상황적인 적응을 더 어렵게 만들고(Tennen & Affleck, 1990) 이러한 공격행동은 인지적 측면인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Ferguson과 Rule(1982)은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유발되고 상황의 책임을 누구에게 두고, 상황을 유발한 동기를 악의적인 동기로 해석하는 것과 같이 인지적 측면에 따라 다른 행동반응을 야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제3자와 친한 친구의 관계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제3자보다 친한 친구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고 공격적인 행동을 야기하지만, 제3자가 친한 친구에게 접근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유도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친한 친구보다 제3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친한 친구와 제3자가 모두 상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친한 친구와 제3자 모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의 책임을 타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중 타인비난전략을 의미하므로, 이 전략의 사용은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전략과 공격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민귀식(2001)은 학교, 가정, 교우와 관련된 스트

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공격성이 유의하게 낮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Dunmont & Provost, 1999; Lohman & Jarvis, 2000)은 적극적 대처전략이 소극적 대처전략보다 청소년의 충동적 문제행동, 알콜중독, 반사회적 행동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또래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공격행동을 보인다면 또래들의 보복적인 행동을 받게 되고, 이는 또래관계에 더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게 되어 정서조절에 더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는 등 악순환의 과정을 야기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구시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총 2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완성된 질문지를 대구시내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240명에게 배부·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자료나 부실기재한 자료를 제외한 총 204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의 경우에는 현재 같이 살지 않는 부모와 관련된 문항들을 응답하지 않아, 결측치가 존재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우정관계는 동성친구관계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청소년기에 해당되므로 이성관계와 동성관계를 연계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전체 표집된 학생들중, 현재 이성교제중인 학생들의 수가 매우 적어 비교연구로써 사례수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우정의 발달적인 과정상 상호성이 확립되고 안정적인 우정관계를 맺게 되는 시기이므로 기존의 안정적인 우정관계를 맺는 동성친구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우정관계 질투정서 척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Parker와 Low(1999)가 개발한 우정 질투정서 척도(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FJQ)를 본 연구자가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짧은 문장으로 된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택된 15개 문항만을 이용하였다. 본 척도는 질투를 느낄만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해 질투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은 자신의 가장 친한 동성친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04)

배경변인	구 분	빈 도(%)
형제 자매수	1명	20( 9.8)
	2명	147( 72.1)
	3명	24( 11.8)
	4명	11( 5.4)
	5명	2( 1.0)
출생순위	만 이	75(36.7)
	둘 째	92(45.1)
	셋 째	15( 7.4)
	넷 째 외 동 이	2( 1.0) 20( 9.9)
가족형태	부모와 함께 살고있음	185(90.7)
	이혼/별거/사별로 한부모와 살고있음	19( 9.4)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12( 5.9)
	고 졸	80(39.2)
	전문대/4년제대학졸	87(42.6)
	대학원졸	22( 10.8)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17( 8.4)
	고 졸	95(46.6)
	전문대/4년제대학졸	74(36.3)
	대학원졸	15( 7.4)
가족소득	100만원이하	10( 4.9)
	101-200만원	42(20.6)
	201-300만원	60(29.4)
	301-400만원	40( 19.6)
	401-500만원 500만원이상	30( 14.7) 22( 10.8)
아버지 직업	무 직	9( 4.4)
	단순노무직	10( 4.9)
	서비스직	43( 21.1)
	판 매 직	17( 8.3)
	사 무 직	73(35.8)
	관 리 직	23( 11.3)
	전 문 직 기 타	18( 8.8) 5( 2.5)
어머니 직업	주 부	89(43.6)
	단순노무직	7( 3.4)
	서비스직	40( 19.6)
	판 매 직	21( 10.3)
	사 무 직	20( 9.8)
	관 리 직	3( 1.5)
	전 문 직 기 타	16( 7.8) 3( 1.5)

구를 말한다. '○○가 보고 싶어하는 콘서트가 있다면, 나는 ○○에게 전화해서 같이 보러가자고 한다. 그런데 ○○는 벌써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반의 다른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보러가는 중이라고 말한다', '나는 ○○에게 생일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준 선물에는 관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는 우리 반의 다른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로 기뻐하면서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 문항은 '전혀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질투심을 느낀다(5점)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질투심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Cronbach  $\alpha$ 계수는 .94였다.

2) 정서척도

Roth(2002)가 사용한 정서척도(Emotion Ratings)를 본 연구자가 수정·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짧은 문장을 읽게 한 뒤, 이러한 상황이 연구대상자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상상하게 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9개의 정서에 대해 어느 정도 느꼈는지 모두 체크하게 한다. 9개 정서는 자신감, 질투심, 슬모없음, 격정스러움, 슬픔, 실망스러움, 놀라움, 화가 남, 당혹스러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은 자신의 가장 친한 동성친구이고, ★★은 자신과 친하지는 않지만 같은 반에 있는 친구라고 하였다. '항상 점심시간에는 당신과 ○○은 나란히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였다. 오늘 당신은 점심시간보다 조금 늦게 학교식당에 도착했고, ○○가 어디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리고 ○○가 있는 테이블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그 테이블에 도착하기 전에, ○○는 가까이에서 있는 ★★에게 말하였다. '★★이야, 안녕! 여기 와서 앉아. 내가 널 위해서 이 자리를 맡아놨어'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서 마지막 남은 자리를 지목하였고, ★★은 ○○옆자리에 와서 앉았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테이블에 가서 앉아야만 했다.」 각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정서를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Cronbach  $\alpha$ 계수는 .89였다.

3)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척도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중 부적응적 정서조절척도(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변안하여 사용한 김소희(2004)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반추전략(예, 내가 겪은 상황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주 생각한다), 파국화전략(예, 내가 겪은 일은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자기비난전략(예, 이 상황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타인비난전략(예, 이 상황이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한다)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별로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개 하위영역별 Cronbach  $\alpha$ 계수는 .73(반추전략), .81(파국화전략), .79(자기비난전략), .79(타인비난전략)였다.

4) 공격성 척도

Crick과 Grotpeter(1995), Schwartz 등(2000)을 기초로 박성연(2002)이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반응적 공격성, 주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을 포함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하위영역별로 반응적 공격성 7문항(예, 나를 궁지에 빠뜨린 아이를 보면 그 아이와 싸운다), 관계적 공격성 6문항(예, 다른 아이에게 어떤 아이와는 놀지 말라고 말한다), 주도적 공격성 5문항(예, 나는 다른 아이들을 겁주거나 괴롭힌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alpha$ 계수는 요인별로 .75(반응적 공격성), .77(관계적 공격성), .81(주도적 공격성)이었다.

3.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질투정서와 관련된 정서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질투정서의 정도에 따른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공격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우정관계 질투정서와 정서유형

1) 우정관계 질투정서의 일반적 수준

우정관계 질투정서의 집단은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위 25%는 낮은 집단, 중간 50%는 중간 집단, 상위 25%는 높은 집단으로 <표 2>와 같이 구분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형제자매수, 출생순위, 친한 친구의

<표 2> 우정관계 질투정서의 일반적 수준

구 분(N)	우정관계 질투정서	
	M	SD
낮은 집단(51)	1.36	0.17
중간 집단(101)	2.31	0.38
높은 집단(52)	3.71	0.55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우정관계 질투정서의 차이

사회인구학적변인 (N)		우정관계 질투정서		
		M	F	S <sup>1)</sup>
형제자매수	1명(20)	2.58	0.54	
	2명(147)	2.45		
	3명(24)	2.24		
	4명(11)	2.41		
	5명(2)	1.80		
출생순위	말이(75)	2.34	0.14	
	둘째(92)	2.51		
	셋째(15)	2.12		
	넷째(2)	3.03		
	외동이(20)	2.58		
친한 친구 수	1-5명(75)	2.58	3.42*	b ab a ab
	6-10명(70)	2.36		
	11-15명(19)	2.11		
	16명이상(40)	2.42		

1) Scheffe의 사후검증 \*p<.05

수)에 따른 우정관계 질투정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형제자매수, 출생순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친한 친구 수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나 형제자매수는 형제관계에서 유발되는 질투정서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는 변인이 되지만 우정관계상황은 형제관계상황과는 구별되는 다른 관계상황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친한 친구수가 11-15명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5명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보다 단짝 친구가 2-3배 더 많으므로, 친구관계의 위협이 되는 질투유발상황이 유발되더라도 친한 친구수가 많은 청소년은 1명의 친한 친구를 잃더라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친한 친구들이 많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반면, 친한 친구수가 1-5명으로 소수인 경우에는 질투가 유발되면 친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 더 많은 질투정서를 느끼게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정서유형의 일반적 수준

정서유형의 일반적 수준은 〈표 4〉와 같다. 실망스러움이 가장 높았고, 쓸모없음이 가장 낮았다.

3) 우정관계 질투정서와 정서유형의 상관관계

우정관계 질투정서와 관련된 정서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정관계 질투정서는 정서유형의 하위변인인 자신감, 질투심, 쓸모없음, 걱정스러움, 슬픔, 실망스러움, 놀람, 화가 남, 당혹스러움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정관계 질투정서는 여러 가지 정서유형과 모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정서유형의 일반적 수준

정서유형	M	SD
자신만만함	2.35	1.08
질투심	2.72	1.30
쓸모없음	1.98	1.19
걱정스러움	2.68	2.68
슬픔	2.46	2.46
실망스러움	2.83	2.83
놀람	2.41	2.41
화가 남	2.71	2.71
당혹스러움	2.66	2.66

〈표 5〉 우정관계 질투정서와 정서유형의 상관관계

		우정질투심
정서유형	자신만만함	.21**
	질투심	.58**
	쓸모없음	.43**
	걱정스러움	.46**
	슬픔	.60**
	실망스러움	.44**
	놀람	.41**
	화가 남	.59**
	당혹스러움	.52**

\*\*p<.001

이는 질투정서를 혼합된 정서라고 한 Izard(1991), Volting 등(2002)의 견해와 일치한다. 따라서 우정관계 질투정서는 여러 가지 정서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정서로서, 앞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내린 조작적 정의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정관계에서 유발되는 질투정서는 다른 상황에서 유발되는 정서처럼 상황에 대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정서유형이 다를 수 있다. 즉 우정질투심으로 인해 서로 주고받는 보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인식한 청소년들은 슬픔정서와 관련된 것이고, 우정질투정서로 인해 친한 친구에서 버림받거나 자신에게 무관심해 질 것이라고 인식한 청소년들은 화가 남과 더욱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투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상황에 대한 동기 및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우정관계 질투정서에 따른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우정관계 질투정서에 따라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6〉 청소년의 우정관계 질투정서에 따른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차이

우정관계 질투정서(N)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반추전략			파국화전략			자기비난전략			타인비난전략		
	M	F	S <sup>1)</sup>	M	F	S	M	F	S	M	F	S
낮은 집단(51)	2.08		a	1.62		a	1.92		a	1.74		a
중간 집단(101)	2.56	12.21*	b	1.97	15.97*	a	2.42	7.98*	b	1.91	9.27*	a
높은 집단(52)	2.89		b	2.55		b	2.58		b	2.39		b

1) Scheffe의 사후검증 \*p<.05

질투정서의 강도가 높을수록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우선, 반추전략을 살펴보면, 우정관계에 대한 반추가 질투정서의 경험 및 표현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Kristen, 2003)에서 볼 때,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이 상황을 보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왜 이러한 상황이 유발되었는지',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과 같이 반대상황을 되짚어 생각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반추전략은 일시적으로는 정서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계속해서 과거의 좋았던 우정관계를 상기시키는 것과 같이 과거의 우정관계 상황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장기적으로는 정서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우울, 불안이 반추전략과 관계된다는 연구(Rose, 2002)에서 볼 때, 이러한 반추전략의 사용이 장기화되면 청소년의 우울, 불안 수준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파국화전략을 살펴보면,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파국화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하는 매우 극단적인 사고를 하게 하므로 단순히 상황에 대해 되짚어 생각하는 반추전략보다도 더욱 더 부정적인 정서적 고통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파국화전략이 미치는 영향은 과거의 우정관계에서 부정적인 사건의 경험이 많았는지 적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과거의 우정관계에서 부정적인 사건의 경험이 적은 청소년이라면 질투유발 상황이 최악의 경험으로 인식되어 파국화전략을 더욱 많이 사용하겠지만, 부정적인 사건의 경험이 많았다면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은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정도와 관련되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비난전략을 살펴보면,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상황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비난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높은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비난을 한다는 연구결과(Bringle, 1981; Carson & Cupach, 2000; Guerrero &

Andersen, 1998; Sharpsteen & Kirkpatrick, 1997)와 일치한다. 그리고 파국화와 자기비난전략은 우울증을 가진 임상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연구(Garnefski, 2002)에서 볼 때, 질투정서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정서적인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기비난전략은 관계변화의 책임을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상황에 대한 마음의 정리를 하는 등 변화를 수용하려는 적응적 노력을 이끌 수도 있으므로,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력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인비난전략을 살펴보면,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타인비난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타인비난전략은 정서적 안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Tennen & Affleck, 1990), 매우 높은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비난을 한다는 연구결과(Tennen & Affleck, 1990)에서 볼 때, 상황의 책임을 타인에게 있다고 보게 되면 그에 따른 부정적인 행동도 타인에게 표현되므로 우정관계가 더욱 악화되게 만들 것으로 추정되며, 질투정서가 높은 집단이 이후의 우정관계에 많은 잠재적인 문제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자기비난전략과 타인비난전략은 질투유발상황에서 책임의 대상자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상반된 전략처럼 보인다. 그리고 행동적인 반응도 자기비난전략은 타인에 대한 행동보다는 자신에 대한 내적반응을 일으키겠지만, 타인비난전략은 타인에 대한 외적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어 자기비난전략보다 더 많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질투정서가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우정관계 질투정서강도에 따른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살펴보았지만, 이 전략의 사용이 청소년의 우정관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우정관계 질투정서척도는 가상의 상황이 본인의 우정관계에 유발되었을 때를 상상하게 하여 응답하게 하였으므로, 실제로 자신의 우정관계에서 유발되었을

때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는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실제 우정관계에서 유발되어 경험하고 있는 질투정서의 정도를 밝히고, 이 상황에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사용한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우정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정관계 질투정서에 대한 자기 보고식 방법은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질투정도를 실제보다 더 낮게 평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질투정서처럼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출한다는 평판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보고에서는 질투심이 낮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과 또래보고식 평가방법을 병행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우정관계 질투정서에 따른 공격성

우정관계 질투정서에 따라서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관계적 공격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적은 공격적인 전략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Bjorkqvist, 1994),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분명한 공격보다는 미묘한 공격의 형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Gueerero et al., 199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질투심이 유발되는 상황은 개인에 따라 공격성이 주요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Buunk, 1982)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질투정서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냉정을 유지하는데 숙련되지 못하여 감정적으로 발산할 수밖에 없어 상황의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지만, 우정관계지속에 대한 기대로 인해 직접적인 공격인 반응적, 주도적 공격보다는 간접적인 공격인 관계적 공격을 함으로써 우정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우정관계 질투정서

가 유발되는 상황에서의 행동적 반응으로써 공격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지만, 행동적 반응은 구체적인 동기와 함께 유발되는데 이러한 동기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못하여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를 추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질투심을 가진 사람의 행동적인 반응인 공격적 행동과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와의 관련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정관계 질투정서에 따른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응적 공격성은 자기 방어적인 보복적인 성격을 가진 공격형태인데, 우정관계 질투정서 유발상황은 실질적인 공격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 아니므로 보복적인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주도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매우 목표지향적인 직접적 공격형태인데(Dodge & Coie, 1987), 질투심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도적 공격을 하게 되면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투심을 느끼더라도 이러한 공격은 꺼리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한 공격적 행동이라면 친구들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적절한 공격형태로 표현되면 친구들로부터 거부되거나 수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정서가 유발되더라도 이러한 공격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외현적인 공격인 주도적, 반응적 공격보다는 관계적인 공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형태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인비난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인비난전략( $\beta=.34$ )이 관계적 공격성을 의미있게 12%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비난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

<표 7> 청소년의 우정관계 질투정서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

우정관계 질투정서(N)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공격성		
	M	F	S <sup>1)</sup>	M	F	S	M	F	S
낮은 집단(51)	1.47	2.23		1.33	5.13*	a	1.43	0.56	
중간 집단(101)	1.50			1.44		ab	1.38		
높은 집단(52)	1.65			1.64		b	1.46		

1) Scheffe의 사후검증 \*p<.05

〈표 8〉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Durbin-Watson = 1.95)	관계적 공격성	
	B	$\beta$
1) 반추전략	-.03	-.06
2) 파국화전략	.03	.05
3) 자기비난전략	.02	.03
4) 타인비난전략	.20	.34***
F	7.002***	
R <sup>2</sup>	.12	

\*\*\* P<.001

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의 원인제공자가 친한 친구나 제3자와 같은 타인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타인비난전략을 선택하면, 타인의 사회적 관계에 손상을 주기 위해 또래간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집단에서 소외시키며,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또래간 우정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관계적 공격을 이끄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비난의 대상자인 타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관계적 공격의 대상자도 달라지게 된다. 친한 친구를 비난대상자로 인식한다면 우정관계에 손상을 가하거나 종결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관계적 공격을 사용하는 것이고, 제3자를 비난대상자로 인식한다면 제3자에 대한 관계적 공격으로써 기존의 우정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은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이긴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가 되므로 (Crick & Grotpeter, 1996) 친한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추후 우정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형제자매수와 출생순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친한 친구 수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명과 같이 소수의 단짝 친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 친구 상실의 위험이 되는 질투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정관계 질투정서는 자신만만함, 질투심, 쓸모없음, 걱정스러움, 슬픔, 실망스러움, 놀람, 화가 남, 당혹스러움과 같은 정서유형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는 우정관계 질투정서도 다른 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정서처럼 여러 정서가 혼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상황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련된 질투정서의 유형은 달라진다. 따라서 추후에는 상황에 대한 어떤 해석이 어떤 정서유형과 더욱 더 관련있는지를 밝힌다면, 질투정서를 느끼는 개개인들의 상황해석에 따른 행동반응을 추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우정관계 질투정서는 모든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질투심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반추전략, 파국화전략, 자기비난전략, 타인비난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강한 질투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한다면, 이후의 우정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질투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사용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적응적인 측면에 초점을 둘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정관계 질투정서는 관계적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질투심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또래의 사회적 비난이 적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만 정당한 행동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인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현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공격인 반응적 공격과 주도적 공격을 사용한다면 또래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비난, 또래거부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은 타인비난전략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비난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난의 대상자인 타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관계적 공격의 피해자도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비난의 대상에 따른 관계적 공격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친한 친구가 아닌 제3자가 비난의 대상이라면 관계적 공격의 피해자도 제3자가 되므로,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목적의 관계적 공격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 이러한 추측은 청소년기가 어떤 시기보다도 우정의 중요성이 증가되며 보다 안정적이 되는 시기이므로, 질투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도 우정관계 유지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점을 제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우정관계 질투정서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은 일반

적으로 제3자가 이성또래일 때보다 동성또래일 때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성격적으로 매우 높은 질투심을 가진 경우는 제3자가 동성친구일 때보다 이성친구일 때 보다 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은 동성친구 상황과 이성친구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없이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에는 우정관계에서 유발되는 질투정서를 동성친구 상황과 이성친구 상황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학생이다. 하지만 정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회화의 과정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성차는 질투심이 유발되는 우정관계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우정관계 질투정서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연령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중 하나는 우정관계에서 질투정서가 높은 집단이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중 타인비난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정관계에서 강한 질투정서를 유발하는 청소년들이 타인비난전략을 많이 쓰게 되면 관계적 공격을 야기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질투심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타인비난과 같은 부적응적 전략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이들이 관계적 공격을 행하고, 이로 인해 우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부족한 우정관계 질투정서라는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초기단계의 연구이므로, 우정관계 질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교환경변인, 가족환경변인, 또래환경변인을 밝히기 위한 추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곽금주(1992).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교현(2004). 남자의 질투와 여자의 질투-연인관계에서의 질투의 성차. 심리학회지, 9(4).  
 김소희(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궁선(1997). 부정적 정서의 조절전략 발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용린(1994).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 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민귀식(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와 공격성과의 관계. 경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141-166.  
 서승정(1995). 타인과의 비교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질투감과 자아존중감간의 관련성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완기(1994). 부모의 체벌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진(1987). 폭력의 이론: 공격행동의 심리적 기제.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6, 1-10.  
 이경희(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옥임(1996). 아동의 화 정서이해 및 화 정서조절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이경(2002). 자기존중감 성취가능성에 관한 연구-질투감정 극복을 통한 자기존중감 성취에 관해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윤미(2004). 아동과 가족, 상황특성이 형제간의 질투정서와 비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정규(1990). 한국 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서울사대논총.  
 Anderson, C. A., Miller, R. S., Riger, A. L., Dill, J. C., & Sedikides, C. (1994). Behavioral and characterological styles as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loneliness: review, refinement, and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49-558.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Y: Holt.  
 Biggs, B. K., & Parker, J. G. (2001). Adolescents Jealousy and Possessiveness of Friends: Social, Behavioral, and Personal Correlate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arch, MN.  
 Bjorkqvist, K. (1994). Sex difference in physical, verbal, indirect aggressio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Sex Role*, 30, 177-188.

- Bringle, R. G. (1981). Conceptualizing jealousy as a disposition. *Alternative Lifestyle, 4*(3), 274-290.
- Bringle, R. G., & Buunk, B. (1985). Jealousy and social behavior: A review of person, relationship and situational determinants. In P. Shaver(Ed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241-264. Beverly Hills, CA: Sage.
- Buss A. H. (1996). Instrumentality of aggression, feedback, and frustration as determinants of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153-162.
- Buunk, B. (1982). Strategies of jealousy: Styles of coping with extramarital involvement of the spouse. *Family Relations, 31*, 13-18.
- Calkins, S. D. (1994).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 in emotion regulation. In Fox, N (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p.53-7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 Carson, C. L., & Cupach, W. R. (2000). Fueling the flames of the green-eyed monster: The role of ruminative thought in reaction to romantic jealousy.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64*, 308-329.
- Coie, J. D., & Dodge, K. A. (1998).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101.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6*, 2328-2338.
- Day, D. M., Bream, L. A., & Pal, A. (1992).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Analysis of subtypes based on teacher percep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210-217.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Y: Guilford Press.
- Dodge, K. A. (1987).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8*, 213-224.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966.
- Dun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343-363.
- Ekman, P., & Friesen, W. (1975). Unmasking the face. A guide to recognizing emotions from facial clue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Ferguson, T. J., & Rule, B. G. (1982). Influence of inferential set, outcome intent, and outcome severity on children's moral judg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8*(6), 843-851.
- Feshbach, N. D. (1971).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reaction toward newcomers. *Developmental Psychology, 4*, 381-386.
- Flett, G. L., Blankstein, K. R., & Obertinsky, M. (1996). Affect intensity, coping,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221-228.
- Garnefski, N.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o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Emotional Problems: Comparison between a Clinical and a Non-Clinical Sampl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 403-420.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0*, 1311-1327.
- Gueerero, L. K., & Andersen, P. A. (1998). The dark side of jealousy and envy: Desire, delusion, desperation, and destructive communication In B. H. Spitzberg & W. R. Cupach(Eds), *The dark side of close relationships* (pp. 33-70).

- Mahwah, NJ: Erlbaum.
- Gueerero, L. K., Andersen, P. A., Jorgensen, P. F., Spitzberg, B. H., & Eloy, S. V. (1995). Coping with the green-eyed monster: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mmunicative responses to romantic jealousy.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59*, 270-304.
- Hanna, D. R., Lowe, K. A., Mass, J., & Halpern, L. F. (2000). The effects of negative life event,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and denial coping on psychopathology in adolescents.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New Orleans, LA.
- Hansen, G. L. (1991). Jealousy: Its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integration within family stress theory. In P. Salovey (Eds.), *The psychology of jealousy and envy* (pp. 252-272). New York: Guilford Press.
- Harris, P. L., & Olthof, T. (1982). The child's concept of emotion. In G. Buterworth & P. Light (Eds.), *Social cognition* (pp. 188-209) Sussex: Harvester Press.
- Huesmann, L. R., & Guerra, N. G. (1997). Children's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2), 409-419.
- Hupka, R. B. (1984). Jealousy: Compound emotion of label for a particular situation? *Motivation and Emotion, 8*, 141-155.
- Izard, C. E. (1991). *The Psychology of emotion*. NY: Plenum.
- Kristen, L. L. (2003). Friendship jealousy and social emotional adjustment: The role of social beliefs and cognitive processes.
- Lansford, J., & Parker, J. G. (1999). Children's interactions on friendship triads: Effects of gender and relationship intransi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5*, 80-93.
- Lohman, B., & Jarvis, P. (2000). Adolescent stressors,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health studied in the family contex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15-43.
- Lucas A. A. (2004).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ions and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jealousy in same-sex female friendships.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Mathes, E. W., Adams, H. E., & Davies, R. M. (1985). Jealousy: Loss of relationship rewards, loss of self-esteem, depression, anxiety and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52-1561.
- Nolen-Hoeksema, S., Parker, L. E., & Larson, J. (1994). Ruminative coping with depressed mood following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2-104.
- Parker, J. G., & Low, C. (1999). Defining and assessing children's jealousy over friends: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Parker, J. G., Low, C., Walker, A., & Gamm, B. (2005). Friendship jealousy in young adolescents: Individual differences and links to sex, self-esteem, aggression, and social adjustment. *Development Psychology, 41*(1), 235-250.
- Parker, J. G., Low, C. & Wargo, J. (1999). Children's jealousy over their friends' friends: Personal and relational correlates in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boys and girl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Parker, J. G., Walker, A., & Gamm, B. (2002). Worlds within worlds: The friendship network context of jealousy and relational aggressio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Ottawa, Ontario, Canada, August.
- Parrott, G. W. (1991). The emotional experiences of envy and jealousy. In P. Salovey (Eds.), *The psychology of jealousy* (pp. 3-28). New York: Guilford Press.
- Rose, A. J. (2002). Co-rumination in the friendships of girls and boys. *Child Development, 73*, 1830-1843.

- Rossmann, B. R. (1992). School-age children's perception of coping with distress: Strategies for emotion regulation and the moderation of adjustment. *Journal of Child Psychiatry, 33*, 1373-1397.
- Roth, M. A. (2002). Navigating the minefields of social triangles: Adolescents' reaction th their friends'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Roth, M. A., & Parker, J. G. (2001). Affective and behavioral response to friends who neglect their friends for dating partners: Influences of gender, jealousy, and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ce, 24*(3), 281-296.
- Rubin, K. H., & Mills, S. L. (1991). Conceptualizing developmental pathways to in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hood.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3*, 300-317.
- Salovey, P., & Rodin, J. (1989). Envy and jealousy in close relationships. In C. Hendrick (Eds.), *Close relationships* (pp. 221-246). Newbury Park, CA: Sage.
- Salovey, P., & Rodin, J. (1990). Provoking jealousy and envy: Domain relevance and self-esteem threa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0*, 395-413.
- Schwartz, D., Chang, L., & Farver, J. (2000). Correlates of victimization in chinese children's peer groups. Paper presented at ISSBD Meeting in Beijing.
- Sharpsteen, D. J., & Kirkpatrick, L. A. (1997). Romantic jealousy and adult romantic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627-640.
- Simmons, R. (2002). *Odd girl out: The hidden culture of aggression on girls*. Harcourt: New York.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37-246.
- Sullivan, M. J., Bishop, S. R., & Pivik, J. (1995). The pain catastrophizing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7*, 524-532.
- Tennen, H., & Affleck, G. (1990). Blaming others for threatening events.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09-232.
- Volling, B. L., McElwain, N. L., & Miler, A. L. (2002). Emotion regulation in context: The jealousy complex between young sibling and its relations with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73*, 581-600.
- Walker, A. R. (2003). Emotion regulation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friendship jealousy and poor social adjustmen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Walker, A. R., & Parker, J. G. (2001). Does Jealousy Matter?: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Self-and Peer-Reported Friendship Jealous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arch, MN.
- White, G. L., & Mullen, P. E. (1989). *Jealousy: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Press.
- Zeman, J., & Shipman, K. (1998). Influence of Social context on children's affect regulation: A functionalist perspectiv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2*, 141-165.

(2006년 1월 25일 접수, 2006년 5월 11일 채택)